

## [ 여수·순천·광양 ]

여수산단 입주업체 지방세 급감

## 여수시 재정운영 초비상

주민세 5월까지 490억...작년보다 140억 줄어

여수산단내 대기업들의 지방세 납부에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여수시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말 현재 여수지역 주민세 납부실적은 지난해 630억원보다 140억원 가량이 줄어든 49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가상승과 원화강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의 영업실적이 부진, 법인세를 주민세 납부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세액 공제 시점이 올해로 변경돼 공제액이 커진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38억원을 납부했던 G사의 경우 올해는 40억원이 줄어든 98억 납부에 그쳤으며 H사와 Y사 등 대형 석유화학 업체들의 지방세도 수십억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여수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수시의 연간 세 수입 규모는 1천 300억원 규모로 산단입주 업체들이 납부한 세 수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는 이를 하반기애 자동차세 등 여타 세목 징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단기 재정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우 매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징수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거문도서 1m짜리 넙치 낚았다

여수 거문도에서 길이 1m의 넙치가 잡혔다. (사진)

10년 경력의 전문낚시인 최인우 씨는 지난 24일 오전 6시께 거문도 동도에서 1m 크기의 대형 넙치를

낚아 올렸다.

임정완씨(38·전남낚시 대표)는 “낚시로 1m가 넘는 넙치를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율촌산단에 대규모 강선(鋼船) 공장

오리엔트조선, 2,800억 들여 10만여㎡ 규모 건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율촌산단에 대규모 강선(鋼船: steel ship) 건조 공장이 들어선다.

전남도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청, 순천시, 광양시와 오리엔트조선은 27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 상황실에서 2천800억 원을 들여 강선 건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오리엔트조선은 유품 1천만 부지에 다음달부터 오는 2010년까지 10만 4천여㎡ 규모의 강선 건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리엔트조선은 선박용 엔진 부품을 제조해 현대중공업 등에 납품하고 LNG 선의 고부가 가치 부품을 만드는 조선기자재 전문 생산업체다. 특히 창업 10여 년 만에 LNG 선과

C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나선다.

이번 오리엔트조선의 유품 1천만 부지로 5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현대스틸산업과 삼우정공을 비롯해 오리엔트조선 등 대규모 업체가 잇따라 입주함에 따라 유품 1천만 부지에 전문 생산업체다. 특히 창업 10여 년 만에 LNG 선과

/광양=김준호기자 chkim@

는 기술력을 갖춰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선박 건조에 나선다.

이번 오리엔트조선은 선박용 엔진 부

품을 제조해 현대중공업 등에 납품하고 LNG 선의 고부가 가치 부품을 만드는 조선기자재 전문 생산업체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